

“여고생, BL작가 이중생활, 코믹 연기 욕심났죠”

김향기 '로맨스의 절댓값' 서 주인공 여의주 연기

여의주는 낮에는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밤에는 BL(남자들의 사랑) 소설을 쓰며 이중생활을 한다. 꽃미남 교사들을 주인공으로 로맨스 소설을 쓰던 그는 현실에서 이들과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마주하며 파란만장한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쿠팡플레이의 하이틴 로맨스물 '로맨스의 절댓값'에는 여의주를 비롯해 만화 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여의주를 연기한 배우 김향기는 지난 14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작품 속 캐릭터들이 굉장히 만화적이고 입체적이었다”며 “한 명 한 명 정말 매력적이어서 곧바로 잊이

아기가 궁금해졌다”고 말했다.

코미디 연기에 도전하는 그는 “평소 코믹 연기를 맛깔나게 살리는 코미디 언들을 존경해 왔다”며 “이번 작품의 재미 있는 대본과 캐릭터를 나만의 방식대로 잘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했다. 캐릭터에 맞게 헤어스타일도 발랄한 이미지의 단발로 정했다.

이 작품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 아직 친숙하지 않은 BL 소재를 다뤄 주목받았다.

김향기는 “극 중 의주는 미성년자이고, 의주가 쓰는 글도 전체판권”이라며 모든 시청자가 드라마를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주에겐 모두 같은 종류의 사랑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성애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오히려 동성애가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정’ 같은 사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여의주에 창작욕을 불러넣은 꽃미남 교사 4인방을 연기한 차학연, 김재현, 손정혁, 김동규도 입을 모아 이 작품을 ‘정춘’과 ‘힐링’으로 정의했다.

-연습뉴스

최인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2월 29일 천문역원 (062)673-2427
<p> 쥐띠: 거센 물결이 굽이치는 계곡에서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는 운세다. 고비를 넘겼으니 기세가 등등해지는 날이다. 49년생 같은 말이라도 표현하는 기교에 따라 그 의미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60년생 출어졌던 집안 식구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어 화합한다. 72년생 잠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계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만든다. 84년생 마음에 새로운 인연이 살며시 자리 잡으니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눈 녹듯 사라진다. 96년생 지금까지 순진했던 선택이 향후 당신의 인생에 아주 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을 잊지 마라. 행운의 수: 2.6행운의 색: 파란색</p>		
<p> 소띠: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발목을 잡겠지만, 소리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이 결코 어렵지 않다. 49년생 가장 절고롭고 상대하기 버거운 사람과 마주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낸다. 61년생 첫인상이 전부 아니다. 한두 번의 짧은 만남으로 상대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73년생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단속하라. 85년생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적인 대우나 결과에 편지 모를 섭섭함이 든다. 97년생 어떤 시련 앞에서 도회장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품을 묵묵히 키워가는 자만이 결국 승리를 거머쥐는다. 행운의 수: 3.8행운의 색: 보라색</p>		
<p> 호랑이띠: 사한계 뺨은 도로 위에서 쓰이니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몹시 울적하다. 50년생 물어두었던 해운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겠으나,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깨끗이 해결하는 전화위복을 만든다. 62년생 오랜 시간 마음을 짓누르던 난제가 해결되니 안타까운은 사라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74년생 본인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 협력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 86년생 주변의 어수선한 일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하라. 98년생 인생에서 헤아리고자만하는 누구에게나 반박되는 일상일뿐이다. 이별에 너무 깊이 잠입하지 마라. 행운의 수: 0.1행운의 색: 주황색</p>		
<p> 토끼띠: 휴식이나 여행을 구상 준비하면 향후 몇 년 동안 기쁨속에 남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운이다. 51년생 밖에서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은 결국 따뜻한 가정이다. 가족과 함께하며 긴장을 풀라라. 63년생 근거 없는 소문은 부풀려지지 마라.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대범하게 넘기는 것이 상책이다. 75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조심하라. 87년생 혼자 결정하느라 고심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99년생 감정의 파고다 높을 때는 정면 돌파보다 잠시 거리를 두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수: 0.2행운의 색: 보라색</p>		
<p> 용띠: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결실을 얻게 된다. 40년생 멀리서 바라만 보며 동경하던 인물과 예상치 못한 계기로 가까운 사이가 될 기회가 생긴다. 52년생 의욕만큼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잠시 뒤로 물러나 때를 기다려라. 64년생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다른 하나가 미련으로 남는다. 모든 것을 다 기질 수 없음을 인정하라. 76년생 무거웠던 몸과 마음이 한순간에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상쾌한 반전이 일어나는 운세다. 88년생 모든 창조적인 변화의 뿌리는 현실적인 인정에 있음을 명심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라. 행운의 수: 2.4행운의 색: 다홍색</p>		
<p> 뱀띠: 뚜렷한 주관을 세우고 행동하라. 타인의 무책임한 말들에 이리저리 휘둘러 중심을 잃지 마라. 41년생 억눌린 감정을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이다. 마음속에 응어리를 쌓아두지 말고 적절히 해소하라. 53년생 그냥 모른 채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본인의 선한 의지로 타인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게 된다. 65년생 청정한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서로서로 편하다. 77년생 인내의 미덕을 실천할 때 비로소 많은 이가 당신의 인품을 칭송한다. 89년생 본인의 적성에 딱 맞는 길을 걷고 싶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의 벽을 체감하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수: 1.9행운의 색: 연녹색</p>		
<p> 말띠: 타인에게 정직한 충고를 건네게 되며,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던 마음의 상처에 완벽한 마취요를 찍는다. 42년생 삶의 궤도를 수정하거나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금전적 지출은 당연히 감수하라. 54년생 미웠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며 허탈함을 느낄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66년생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부부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움직이니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78년생 강직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해 실리적 압박감이 평소보다 심해졌으나 실력으로 승부하라. 90년생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라도 주변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빛이 바랜다. 행운의 수: 7.8행운의 색: 노란색</p>		
<p> 양띠: 연모하는 사람을 향한 뜨거운 감정을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진다.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날이다. 43년생 가족이나 주변에 관련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하라. 55년생 깊은 고민에 빠져 고독해 보이는 이가 주변에 있다면 따뜻한 위로와 함께 손을 잡아주라. 67년생 금전 상황에 여유가 없다면 미련을 버리고 불필요한 지출이나 물건을 과감히 정리하라. 79년생 아무리 고심 끝에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미세한 후회는 남기 마련이니 받아들여라. 91년생 주변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집중되는 날이다. 이럴 때일수록 고개를 더 숙이고 겸손하라. 행운의 수: 0.2행운의 색: 흰색</p>		
<p> 원숭이띠: 주변 상황이 여유롭게 흘러가면서 낙관적이고 행복한 기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하루다. 44년생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는 법이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56년생 본인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의 기운이 감돈다. 68년생 결호술만 보고 판단하는 눈대중을 버려라.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80년생 과도한 경쟁심은 새로운 인맥 형성을 방해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타인을 수용하는 여유를 가져라. 92년생 앞만 보고 질주하다가 예기치 못한 눈썹에 빠질 수 있다. 행운의 수: 1.7행운의 색: 파란색</p>		
<p> 닭띠: 무리해서 나서기보다 몸을 사리고 자중하라. 짧은 휴식과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 이득이다. 45년생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맞서지 말고 잠시 몸을 낮춰 웅크리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57년생 결과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당초 계획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니 평온한 성취감을 맛본다. 69년생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충돌하여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중재에 힘써라. 81년생 심신이 안정을 찾으니 직업적인 성취감이 뒤따르고 가정에도 평화로운 기운이 감돈다. 93년생 부당한 압박이나 억압은 단호히 거부하라. 어떤 회생을 치르더라도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우선. 행운의 수: 2.8행운의 색: 주황색</p>		
<p> 개띠: 평평했던 긴장감이 완화되는 시점이다. 본인의 잠재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다. 46년생 후배들에게 늘 엄격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으나, 오늘날만큼은 부드러운 말투로 다가가라. 58년생 본인의 성향에 맞지 않는 옷은 과감히 벗어 던져라. 과감한 정리가 새로운 출발의 원동력이 된다. 70년생 애정과 우정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날이다. 특별한 인연을 기다려왔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82년생 타인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오로지 본인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을 누리며 에너지 보충하라. 94년생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는 날이다. 행운의 수: 0.4행운의 색: 황금색</p>		
<p> 돼지띠: 당장의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 더 멀리 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에너지를 써라. 47년생 타인의 성취를 질투하거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지 마라. 마음을 넓게 가져야 복이 온다. 59년생 누군가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 들겠지만, 본인의 자신감을 굳게 믿고 소신을 굽히지 마라. 71년생 고요했던 문제의 현명한 해결책을 찾게 되며, 주변의 놀라운 비밀을 접하게 될 운세다. 83년생 당신이 공들였던 인물이 마침내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강력한 우군이 되어준다. 95년생 실패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값진 교훈을 얻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수: 4.9행운의 색: 민트색</p>		

광주매일 TV 광주매일신문 영상뉴스 제보·문의 062) 650-2010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13기 창조클럽 제2강 박지훈 변호사 '일어두면 쓸데없는 생활법률' [Shorts] 원도 수산물 창고 화재 실종 소방대원 숨진 채 발견
제3기 전반기 글로벌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조영구 방송인... KIA 변우혁 선수가 팬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
"왕 대신 동물"...우치동물원 동물과 사는 남자' 운영 [토크내담] 광주 유일의 여자 야구단 '스윙이클스'

최인태의 사주칼럼

수(水)의 혈(穴)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기운이 지나가는 관문'이다. 이 좁은 수로를 통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동한다는 사실은 곧, 이 지점이 물질적 자원뿐 아니라, 에너지 흐름 자체를 지배하는 자리라는 뜻이다. 역학적으로 보면 이는 수(水)의 혈(穴)에 해당한다. 물은 흐름과 순환을 상징하며 현대 경제에서는 곧 에너지와 자본의 흐름을 의미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것은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니라, 전 세계 수 기운의 순환이 막히는 현상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강한 화(火)의 작용이다.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은 화의 기운을 극대화시키며, 수와 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수화상극(水火相戩)의 형국을 만든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급격한 가격 변동, 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공포 심리의 확산이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고, 이는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유발한다. 즉, 수의 흐름이 막히고 화가 과도해지면 경제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다.

또한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자원 통로를 넘어 '기운의 교차점'이기 때문이다. 중동은 토(土)의 성격을 지닌 지역으로, 자원을 품고 구조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이 토 위에서 수가 흐르고, 여기에 화가 개입하면 토는 흔들린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환율 변동, 주식 시장의 급등락, 안전자산 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은 과연 화의로 갈 것인가. 역학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수화 충돌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수는 본래 흐르려는 성질이 있고, 화는 타오르다가 결국 꺼진다. 충돌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반드시 이를 조정하려는 토의 작용, 즉 '중재와 균형의 힘'이 개입한다. 이는 외교적 협상, 제3국의 개입, 또는 이해관계 조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해협 역시 오해의 균형에 있다. 강한 화를 억제하고 막힌 수를 다시 흐르게 해야 한다. 이는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협상과 공급 다변화, 에너지 전략 재편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평화 제스처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다. 수와 화의 충돌 속에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인가가 아니라, 누가 균형을 먼저 잡느냐다. 흐름은 막을 수 없고, 기운은 반드시 순환한다. 전쟁의 긴장 속에서도 결국은 다시 흐르게 만드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TV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광주)	7:50 인간극장	8:25 시청자 주간 기획 아침미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광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시랑의 가족	12:00 KBS 뉴스 12	1:00 KBS 네트워크 특선 해드림 컴퍼니(광주총국)	1:50 생활의 발견스페셜	2:00 KBS 뉴스	2:10 20년 후 초능력	2:40 불행해도 괜찮아8	2:45 팔도방송 스페셜	3:00 중계방송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가역시	4:00 사사건건	4:10 KBS 뉴스 5	5:30 전국을 달린다	5:40 이따맘	6:00 시청자 주간 기획 6시 내고향	7:00 뉴스7 광주전남	7:40 한강의 밤	8:30 일일드라마 기쁜 우리 젊은 날	9:00 KBS 뉴스 9	9:35 KBS 뉴스 9(광주)	9:50 KBS 뉴스 9	10:00 다큐 인사이트	10:50 KBS 뉴스라인W	11:3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0:00 KBS 중계식	1:10 트래킹 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4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레블홀리	2:3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45 아침미당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10 KBS 네트워크 특선 행복충정전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불출력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7:50 생활속 오늘아침	8:00 모닝와이드(1부)	8:25 모닝와이드(2부)	7:20 MBC 모닝와이드	7:40 모닝와이드(3부)	8:40 닥터365	8:50 좋은아침	9:55 SBS 뉴스	06:10 세계대미가행	07:00 나비발명천구해치	07:15 무지개 장이치 달린의 모험	07:30 기가피드	07:45 메탈카드봇 G 강철의 포유	08:00 당동명 당동명	08:20 최고다! 호기심딱지	08:35 최고다! 호기심딱지	08:50 고미발명천구해치	09:00 오구구내사제기	09:30 시라미-부활수업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1:05 세계대미가행	12:00 EBS 뉴스 12	12:10 24시간뉴스-집	13:05 한국기행	13:25 EBS 평생학교 1교시	14:10 EBS 평생학교 2교시	14:55 1의 두 번째 교과서	15:35 1의 비밀천구해치	15:50 나와야 할	16:05 불복스	16:20 당동명 당동명	16:40 최고다! 호기심딱지	16:55 최고다! 호기심딱지	17:10 페피피	17:20 메탈카드봇 G 강철의 귀환	17:50 티시테시와 추추고 노래해요!	18:00 EBS 뉴스	18:20 고령민국	18:50 PD로	19:45 글로벌 아바타 찾아삼만리	20:40 세계대미가행	21:35 한국기행	21:55 댄스!	22:50 EBS 다큐프라임	23:45 워터만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00:05 고전 역사를 바꾼 100 책	00:20 나비발명천구해치	01:00 클래식스	01:20 시사채널e	01:25 시사채널e	01:30 방송시간이 아닙니다4	01:30 방송시간이 아닙니다4

tbN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 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2)
프로듀서: 정회준 | 진행자: 노희철 |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출근길을 안전하고 활기차게 책임집니다.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이진아 | 진행자: 정인택, 박승기 | 작가: 한효정
나쁜 후의 슬기로운 선택! 박승기, 정인택과 함께 유쾌한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보세요.
충겨운 트로트 가요와 신나는 코너로 스트레스를 해소드립니다.

광주 남도매거진 (17:00~17:52)
프로듀서: 권우경, 박다운 | 진행자: 박유리 | 작가: 정안숙
지역의 오늘을 읽고 내일을 바꿉시다.
남도매거진은 청취자와 지역을 잇는 가장 안전한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달리는 라디오 (18:05~19:55)
프로듀서: 나재규, 김지우 | 진행자: 최유경, 서예원 | 작가: 윤서희
복잡한 퇴근길, 달리는 라디오와 함께라면 마음은 집으로 달려갑니다!
퇴근길 교통정보와 우리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유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역시 달랖!

KCTV 광주방송

KCTV 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프로그램 안내

KCTV 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나 다양한 주요 소식들,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 시사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 이번 주 주요 프로그램 ◆

KCTV특집 < 통합교육감 예비후보 토론회 >
오는 6월 치러지게 될 지방선거에서 전남과 광주의 교육을 책임질 통합교육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예비후보들을 초청해 지역 교육과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청사진을 들어본다.
방송: 4월 16일(목) 17:00~18:00

네트워크 전국발굴 < 규모도 맛도~ 더큰장어 광주 >
5곳 케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각 지역의 맛과 멋을 담은 매거진TV. 이번에는 광주에 매머드급 식당과 매장에 대해 무항생제 장어로 인기가 높고 장어구이 전문 식당을 찾아간다.
방송: 4월 16일(목)~4월 17일(금) 13:00~13:30

달려라KCTV < 게임동 골목형상탐자 >
광주의 원도심이자 최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뜨고 있는 게임동 골목형상탐자를 찾아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방송: 4월 14일(화)~4월 16일(목) 14:00~14:30